

이성선의 ‘산문시집’ 《꿈꾸는 아이》를 통해본 시인의 시세계

김인섭*

목 차

I. 서론

II. 본론: 주요심상의 내포적 의미

- 이야기의 서술적 의미와 시의 함축적 의미

1. 지상(地上)의 심상

1) 벌레

2) 밭줄

2. 지상과 천상(天上)의 매개심상

1) 소

2) 물(강물)

3. 천상의 심상

1) 새(날개)

2) 천체심상(하늘, 달, 별)

III. 결론

[부록] : 《시인을 꿈꾸는 아이》줄거리

I. 서론

이성선 시인은 1941년 강원도 고성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농학과와 동 대학원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1970년 《문화비평》지에 〈시인의 병풍〉 등으로 등단한 뒤, 1972년 《시문학》에 재추천되어, 자연과의 합일을 모색하는 일관된 시세계를 추구하다가 2001년 5월에 심장마비로 타계하였다. 그동안 첫시집 《시인의 병풍》(현대문학사, 1974)에서 시작하여 마지막 시집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세계사, 2000)에 이르기까지 13권의 개인시집을 출간하였다.¹⁾

* 숭실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시인을 꿈꾸는 아이》(율도국)는 1997년 6월에 출간된 작품으로, 타계하기 4년 전, 마지막 시집을 내어 자신의 시세계를 마무리하기 직전에 발표한 것이다. 1980년대초 '밭줄'이라는 표제로 묶었던 장시(長詩)를 윤색하여 산문시집으로 재구성하여 놓은 것이다. 영혼에 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고자 고쳐 쓰기를 5년 동안 열네 번이나 거듭하여 완성한 작품이다. 형식은 '산문으로 된 시집'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처럼 이른바 '어른을 위한 동화'이다.

작품 서두에 실린 〈독자에게〉라는 글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아이가 당신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나비를 꿈꾸는 아이
시인을 꿈꾸는 아이
자유를 꿈꾸는 아이

이 아이 시인이 실은

1) 시인이 발간한 시집은 다음과 같다.

- 1974, 시인의 병풍, 현대문학사
- 1977, 하늘문을 두드리며, 전예원 - 연작 장시집
- 1979, 몸은 지상에 묶여도, 시인사
- 1982, 밭줄, 창원사 - 장시집
- 1985, 나의 나무가 너의 나무에게, 오상사
- 1987, 별이 비치는 지붕, 전예원
- 1988, 별까지 가면 된다, 고려원
- 1989, 새벽 꽃향기, 문학사상사
- 1991, 향기나는 밤, 전원
- 1991, 절정의 노래, 창작과비평사
- 1994, 벌레 시인, 고려원
- 1999, 산시, 시와시학사
- 2000,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세계사

당신 안에서
당신과 살고 있습니다.

그를 깨워 그와 함께
지상을 걸어가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주인공인 '아이 시인'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영혼은 시인을 꿈꾸고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혼으로서, 그의 시에서는 우주의 근원에 도달한 '나비' 이미지로 흔히 표상된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환상적인 분위기 속에 등장하는 갖가지 심상들은 그의 시세계 전반에 두루, 거듭 나타나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화 형식을 띤 이 산문시집은 그의 시적인 삶과 작품세계를 관류하고 있는 시적 태도와 정신, 시를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인 세계 등이 무엇인가를 응축하여 보여주는, 그의 시적 변모과정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심상들의 함축적인 의미를, 시인이 서사 형식을 통해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에 기대어 정리한 다음, 그 내포적 의미가 시세계에서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지, 상호 관련양상을 검토하여, 시인이 추구한 시적 구도(求道)의 여정(旅程)이 도달한 세계가 무엇이었던가를 규명하고, 이 작품이 갖는 문학적 의의를 지적하고자 한다.

II. 본론 : 주요심상의 내포적 의미

- 이야기의 서술적 의미와 시의 함축적 의미

이 작품은 서두의 <독자에게>라는 필자의 서문에 이어 22장의 본문으로 되어 있다.²⁾

《시인을 꿈꾸는 아이》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 모티브들을 원용하여 골격을 갖추고, 그의 시에 등장하는 주요 상징 심상들로 디테일의 살을 붙여 형상화시킨 것

2) 각 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전개과정을 정리한 내용은 '부록'에 줄거리로 제시되어 있다.

이다. 이로써, 시인이 추구했던 문학적 세계가 무엇이었던가를 보여주는 한편,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암시하고 있다.

이야기의 골격을 이루는 몇 가지 모티브들은, 천상에서 유배된, 보르레트가 말한 펠리컨 심상을 제외하면, 장자의 '소요유 逍遙遊'의 세계, 호접몽(胡蝶夢), 날개 달린 아기장수의 설화, 우화등선(羽化登仙)하는 각피설화(우렁각시) 등 주로 동양문학의 전통에서 빌려온 것들이다. 이는 그의 상상력의 기반이 서구적인 것보다 동양적인 세계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모티브들을 뒷받침하는 주요 소재, 혹은 심상들은 자연을 표상하는 심상이 지배적이다. 이야기 전개에 기본 축을 이루는, 가장 두드러진 심상은 우화등선 모티브의 '벌레'와 '나비(새)' 심상이다. 이는 지상과 천상적인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꽃', '바다', '밭줄', '강', '소' 그리고 '피리소리', '하늘', '별', '달', '천둥' 등 여타 많은 방계적 심상을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자연심상이 지배적인 것은, 그의 시세계가 현대 문명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전통적 서정시의 세계를 갖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서사적 구조의 모티브 고찰은 유보하고, 이야기의 주요 심상과 그의 시적 심상의 상관관계, 시인의 심상체계의 일단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지상(地上)의 심상

1) 벌레³⁾

이야기 속의 '벌레'는 고통스러운 육체의 껍질을 부수고 궁극적으로는 '나비'로 탄생하여 날아가야 할 존재이다. (17면) 그러기 위해서 벌레들은 열심히 몸을 움직여 쉬지 않고 기어가야 했고, 기어가다가 아무도 모르는 시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집을 짓고, 작은 집 속에 죽은 듯 숨어 기다리면서, 모든 감각을 안으로 거두어들이고, 스님이 선정(禪定)에 들 듯, 이 모든 번뇌를 물처럼 투명해하며 오직 안으로만 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집을 부수고 나비로 태어나는 것이다(16면). 땅을 기어가다가도 어느덧 하늘을 날고, 땅에서 살던 그들이 어느 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 잎사귀를 먹던 그들은 어느덧 꿀과 꽃가루만 먹는 하늘의 존재가 된다(123

3) 시인은 1994년 고려원에서 《벌레시인》이라는 표제의 시집을 출간한 적이 있다.

면). 즉, 벌레들은 모두 꿈을 꾸는 존재이고, 꿈꾸며 살다가 갑자기 날아가는 것으로, 땅을 기어가던 존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 하늘의 존재, 우주적 존재로 변한다(24면).

이야기에서 '아이 시인'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이들 벌레와 함께 어울리며, 그들 속에서 알몸으로서의 자신의 자유로움과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낀다. 벌레들과 더불어 사는 삶에서 육체는 리듬을 얻고, 영혼은 자유로워진다. 결국 벌레는 같은 생명체로서 인간과는 대립되는 존재이며, 자신의 길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사는 인간들과는 달리 우주의 근원과 그 비밀을 알고자 하고, 궁극적인 자유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하는 시인과 그의 삶을 상징한다.

시인의 산문 같은 시, 〈序詩〉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최초 땅 속에 허리 구부리고 살던 벌레는 어둠에서 나와 땅 위를 기어갑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몸 구부렸다 폈다 하며 지구의 한 부분을 기어갑니다.

그러나 그의 내부는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일념, 우주를 소유하려는 정신으로만 불타, 아무도 모르는 사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집을 짓습니다. 작은 벌레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天刑의 무늬를 두르고 깜깜한 독방에 홀로 들어앉아 웅크리고 가다듬고 꿈꿉니다. 해탈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불타오르며 허물을 벗으며 끝없이 하늘문을 두드립니다.

우주의 위대한 침묵이 그를 감쌌습니다

드디어 그는 자기를 파괴하고 자기 안의 나를 파괴하고 한 마리 나비로 완성되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우주를 소유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시세계 머리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시인은 이 우주 속의 하나의 '벌레'같은 미미한 존재로 살아간다. 그는 무명(無明)으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여 작고 보잘것없는 몸짓으로 거대한 우주의 한 부분을, 그 속의 자신의 길을 낮게 낮게 걸어갔다. 그러나 그런 삶의 과정은 하늘로 날아올라 우주를 소유하기 위해 아무도 모르는 시공간에 집을 짓는 일이었다. 거기서 해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죽음은, 하늘문을 두드리다가 마침내 육신의 집을 탈각하여 가벼운 나비가 되어 하늘로 오르며 우주를 소유하는 것이었다.

2) 밧줄⁴⁾

‘밧줄’은 사람들의 가슴에 숨어서 사람들의 가슴을 뽕뽕 엮고 있는 것인데(67면), 그 정체는, ‘선(善)’, ‘자비’, ‘진실’, ‘정의’, ‘의리’ 등의 말들이다(68면). 밧줄은 바로 이 가치관이라는 울실과 윤리라는 빗깔과 법이라는 소리와 종교라는 노래를 한 데 잘 꼬아서 만든 것으로, 이것으로 모두를 엮는 것이다. 이 밧줄의 존재에 대하여, 그것의 의미에 대하여, 또 그것의 가치에 대해서도 함부로 의심을 품거나 도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것은 의심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존재가 되었고, 위대한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120면). 인간들은 종류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책을 저술하여 ‘밧줄’의 의미, 사상, 영원성 등을 자손 대대 널리 읽히고 있다. 이런 그들은 모두 죽어서도 밧줄을 버리지 못하고 밧줄에 뽕뽕 묶인 채 지상을 떠나게 된다(121면).

몸은 지상에 묶여도
마음은 하늘에 살아야지
이 가지 저 가지를 헤매며
바람으로 울어도
영혼은 저 하늘에 별로 피어야지
(몸은 지상에 묶여도)에서

이 시에서는 지상의 육신과 하늘의 마음(영혼)이 극명하게 대비되어 있다. 시인은 지상의 ‘묶임’이 아니라 천상에서 자유롭게 ‘피어나기’를 다짐하고 있다. 시인의 존재는 천상에서 유배되어 지상에 묶여 있는 존재로 파악된다. 이러한 천상과 지상의 공간적 단절, 성(聖)과 속(俗)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고 두 세계를 자유재자로 넘나드는 데 ‘매개적 심상’이 등장한다.

4) 시인은 1979년 《몸은 지상에 묶여도》(시인사), 1982년 장시집《밧줄》(창원사)을 출간한 적이 있다.

2. 지상과 천상(天上)의 매개심상

1) 소

이야기에서 아이 시인은 꿈인가 생시인가에 하얀 빛 소를 타고, 산을 지나 강을 건너고, 들을 지나서 다시 언덕으로, 거울 속처럼 맑은 세계, 숨소리도 안 들리는 고요한 세상, 하늘인가 땅인가 높은 곳에 오른다. (38면) 거기는 '삶과 죽음의 경계'였다. (40면) 삶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인지, 그 진실의 비밀을 데려가 보여준 하얀 소(45면)로 등장하였다. 결국 아이 시인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은 삶의 땅이 죽음의 땅이며, 죽음의 세계가 바로 삶의 세계 그 자체라는 것이다. '소'는 지상과 천상, 이승과 저승의 벽을 허물고 깨달음을 이끄는 존재이다.

시에서도 "천년쯤 후 어느 소가 / 이 하늘을 가로 질러와서 // 들의 풀을 뜯어먹고 있다." ('無明'에서)는 표현에 볼 수 있듯이, '하늘'과 지상의 '들'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매개적 존재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우황 牛黃〉이라는 시에서는

병 하나는 지니고 살아야 아름답다
몸이 아파 산을 바라보며 우는 소
철쭉꽃 하늘 닿도록 피어나는 날
좌선하듯 앉아 번뇌를 꺼내 씹는 소여-
영혼의 빈 배가 되어
세상의 병을 하늘로 실어나르는 이
자신의 깊은 병으로만 남의 병을 건지는
이 세상 마지막 성인-
몸이 아파 하늘을 보고 우는 소여

라고 하였다. '영혼의 빈 배'인 소는 자신의 깊은 병으로 세상의 병을 하늘로 실어나르는, 이 세상 최후의 성인(聖人)이다. 마침내 '소'는 "고요를 열면 무엇이 빛 날까 / 들판의 황소 한 마리 / 나비로 변하여 날아간다." ('고요를 열면', 첫연) 또한 "동네 우물을 / 소가 들여다 본다 // 우물 속에는 상수리나무잎 피고 / 새가 날고 / 하얀 구름이 흐른다 // 물 속의 소는 유난히 귀가 크다." ('우물을 보는 소', 1~3연)

라고 한 데서, 소는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비밀을 물속의 또다른 세계의 모습을 보면서 듣고 있다.

2) 물(강물)

방금, 위의 시에서 보듯, ‘물’의 이미지는 지상의 세계를 또다른 모습, 즉, 피고, 날고, 흐르는 모습으로 보여준다. 즉 지상의 얽매여 있는 것들이 자유롭게 풀어 놓여나는 또다른 세계를 은밀하게 보여준다.

이야기에서 ‘물’의 심상은 흔히 ‘강물’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아이 시인이 본 강물은 그 수면(水面)이 거울같이 맑았고(126면.) 그 강물은 어쩌면 여기 서서 서로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 같은 것이었다(127면). 그리고 처음도 끝도 보이지 않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흐르는 강이었다. (126면). 강물은 흐르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흘러가면서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다시 태어난다. 강물의 흐름은 다름 아닌 삼라만상의 변화의 연속이고 흐름이었다(131면). 그래서 아이 시인은, 저 강물 속에도 지금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숨어 있듯이, 우리 몸 속에 꿈 속 세계를 하나 숨기고 살아가듯이, 세상도 그의 몸 어디에 또 하나 다른 세상을 숨기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명상에 잠긴다. (128면).

‘강물’은 결국 아이 시인으로 하여금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 지금의 현실세계와 꿈속의 세계가 둘이 아니고 모습만 바뀐, 하나로 같은 세계라는 깊은 자각을 유도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는데, 시에서도 이런 의미는 ‘고여 있는 물’ 등 여러 형태의 물의 심상을 통해 자주 표상된다. 몇몇 작품을 예시만 해보면 다음과 같다.

비 갠 후
물 속 네 그림자를 바라보면
거꾸로 서서 또 한 세계를 열어 놓고
가고 있는 너

〈나무 안의 절〉에서

찾잔에 산을 띄워
달여 마신다
우주가 내 뱃속에

나비되어 난다.

〈산다 山茶〉에서

개울물을 건너는 아침
징검다리에 엎드려 물을 마시다가
문득 물에 몸 비치고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마신다
성인(聖人)을 먹는다

〈물을 건너다가〉에서

길바닥 소 발자국에
문득 우주가 고여
빛난다

〈나의 집〉에서

3. 천상의 심상

1) 새(날개)

이야기에서 지배적인 소재 심상으로 등장하는 '새'는 우선, 나뭇가지 끝에서 가볍게 떠나 날아가는 존재이다(21면). 나뭇가지 끝은 천상으로 향하는 지상의 마지막 공간이고, 가벼움은 지상의 존재가 갖는 무거움을 벗어던지는 탈각(脫殼)의 심상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직적으로 비상(飛上)하는 존재로 제시되어 있다. '새'는 이러한 속성 때문에, 이 시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인, 시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의 꿈을 대신하는 대리대상물이 된다. 그러나 시인만의 독특한 상상력의 산물로서 '새'의 의미는 따로 가지게 마련이다.

이야기에서 '새'의 심상은 여러 번의 변용을 거쳐 갑자기 큰 새가 되는데, 긴 빛의 날개를 좌우 허공으로 퍼들고 너울너울 하늘로 펼렁이며 날아온다. 그것도 허공을 꿰뚫어 노력하며 천공(天空)을 울리는 소리로 울면서 난다(37면). 아이 시인이 꿈속에서 새가 되었을 때에는, 높고 푸른 하늘을 날아 올랐는데, 날개는 하늘의 울동을 받아 더욱 가볍고, 리듬있게 미끄러져 나갔다. 끝없는 하늘을 끝없이 헤치고

계속 날아올라 하늘 높은 상공에 있는 작은 섬에 도달하였다(111면).

이처럼, 이야기에 등장하는 새는 여느 새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 지상에서 천상으로 비상하여, 그 두 세계를 단순히 매개하는 존재만은 아니다. 그의 눈은 허공을 꿰뚫고, 그의 울음은 천공을 울리는 우주적 차원의 존재이며, 그가 얻은 가벼움은 '하늘의 울동', 시인이 즐겨 칭하는 '우주율(宇宙律)'에 리듬을 맞추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새의 심상은 시인의 거대한 상상력을 잘 보여주는데, 우주 전체, 즉 큰 몸, 큰 영혼, 큰 리듬의 세계를 표상할 때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새'는 무엇보다도 '날개'를 가짐으로써 남다른 존재의의를 얻는다. 이야기에서도 새의 '날갯짓'에 대한 묘사는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의 시에서 이런 '날갯짓'의 심상은 '나비'를 통해 자주 표상된다. 예시를 하면 다음과 같다.

꽃 앞에 앉았던 아이가
갑자기 한 마리 나비 되어
꽃 주위를 돌며 춤을 춘다.

〈장자 나비〉에서

우주가 / 내 뱃속에 / 나비되어 난다.

〈산다山茶〉에서

고요를 열면 무엇이 빛날까
들판의 황소한 마리
나비로 변하여 날아간다.

〈고요를 열면〉에서

대청에 앉아
달빛으로 마루를 닦던
조실스님
나비가 되어
침침산중 밤하늘로 푸드득 날아간다.

〈법당 마당〉에서

‘나비’는 작고 가벼운 심상이지만, 그 내포적인 의미는 우주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2) 천체심상(하늘, 달, 별)

우선, ‘달’은, 바다를 거침없이 떠나 하늘로 오르는 존재인데, 아이 시인의 영혼이 밤마다 아름답게 떠오르는 몸짓을 꿈꾸기 시작할 때, 나뭇가지 끝에서 가볍게 떠나 날아가는 새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우는 숲 속의 천둥처럼, 이 지상으로부터 어딘가 열려 있을 자유의 공간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고 싶은 아이 시인의 욕망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심상이다(21면).⁵⁾

즉, 이야기에서의 달은 또다른 지상의 세계인 ‘바다’ 공간에서 출발하여 천상에 이르는 매개적 존재이다. 그런 면에서 상상력의 패턴은 ‘새’의 심상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시에 표상된 달의 심상은, 하늘 높이 떠서 지상의 인간적 삶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천상적 존재로 표상된다. 예시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늘에 달이 가듯
세상에 선연히 떠서
그는 홀로 걸어갔다.

〈구도 求道〉에서

달 지나가는 발자국이 하늘에는 없지만
물 속을 사람 하나 훑추며 간다.

〈전율〉에서

깨진 알껍질만 하나 감싸고 떠 있는
저녁의 달무리만 보입니다.

〈달무리〉에서

낮달이 하느님처럼 어깨너머 다정하다.

〈마타리꽃〉에서

5) ‘달’의 이러한 표상에서 이 시인의 독특한 상상력을 볼 수 있다.

이 이야기 시집 《시인을 꿈꾸는 아이》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하늘’ 공간이다. 하늘은 빛의 세계이며, 지상적인 존재가 자유(自由)를 얻는 아름다운 세계로 묘사된다.⁶⁾

하늘은 아름다운 존재이며, 하늘에 존재하는 모두가 아름답다. 영원하고 무궁한 세계, 자유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두는 아름답다(53면) 닫힌 영혼은 그 세계를 볼 수 없다(101면). 열린 영혼만이 모든 것을 볼 수 있고, 모든 소리, 하늘의 위대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102면). 이러한 하늘 공간에 별은 지상의 꽃처럼 피어 있다. 하늘엔 많은 별들이 피어 있고, 어둠 깃들인 별판에는 그 어둠 속으로 또 많은 꽃들이 떠올라 있다. 별이 내린 밤바다처럼. 하늘의 별과 지상의 별들이 서로 눈빛을 부딪히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가까이 다가간다. 부딪히는 그들 눈빛들이 밤의 공간을 음약처럼 수놓는다. 이런 광경을 보고 아이 시인은 “아름다운 하늘이여!”라고 외치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름다운 그 세계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그런 아이 시인의 모습은 별 사이를 날아가는 나비와 같다(103면).

별의 말씀으로 이 몸을 뒹습니다.

하늘의 말씀으로 이 몸을 뒹습니다.

〈바람소리〉에서

나무에 걸린 구름과 햇살
밤에 빛나는 성진의 무리들이
내 뿔줄을 타고 내려와
숨결을 이루네

〈자궁 안에서〉에서

나무들의 숲으로 가서
짐승과 별과 달과 바람이 얼굴 비비며
속삭이는 나라의 소리를 듣고 싶네.

〈귀〉에서

그의 시에서 ‘별’의 심상은 천상공간에서 지상공간으로 향하는 것으로서, ‘달’이 그 반대방향으로 상승하는 심상이었던 점과는 대조적이기도 하다. 이처럼 천체의

6) 시인은 1977년 연작 장시집 《하늘문을 두드리며》(전예원)를 출간한 적이 있다.

심상들은 그의 시에서도 지상의 세계와 분리, 단절된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합일을 꿈꾸는, 시인의 궁극적인 시의식을 잘 보여주는 심상으로써 자주 등장한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산문시집 《시인을 꿈꾸는 아이》에 나타나는 주요 심상들의 서술적 의미와 시에 표현되어 있는 같은 심상의 내포적, 함축적 의미를 견주어 보았다.⁷⁾ 이미 전제한 것처럼, 《시인을 꿈꾸는 아이》는 시인이 일관되게 추구한 시세계와 그 정신을 동화수법으로 집약, 재구성한 산문시집이다. 이 산문시집의 이야기 전개 구도와, 그의 시세계의 주요심상들의 양상을 상호연관지어 살펴본바, 시인의 상상력은 일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으며, 지상적 심상과 매개적 심상, 천상적 심상이 상승(上乘)과 합일(合一)의 상상력을 구체화한다.

지상의 심상으로서 '벌레'와 '뱃줄'은 시인의 지상적 존재와 그 조건을 인식하게 하는 심상이다. '벌레'로서 시인은 꿈꾸는 아이로서, 지구의 한 부분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해탈의 순간을 기다리며 허물을 벗고 끝없이 '하늘 문'을 두드리는 존재이다. '뱃줄'은 이런 삶을 꿈꾸게 만드는 현실적 제반 압제들이다. 그가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는 천상의 심상들로서 '하늘', '달', '별'의 심상으로 구체화되고, 그곳에서의 삶은 '새'의 심상으로 표상된다. 이 양자 공간을 매개하는 심상으로서 '소', '물(강물)'이 주요심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물'의 심상이 이 세계와 저 세계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소'는 그 두 세계를 넘나드는 지혜와 고통을 함축한 심상이다.

이러한 시인의 심상체계는 자아와 세계가 분리, 대립하지 않는 그의 유기적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바, 그의 상상력은 철저히 동양적 사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아울러, 그의 시적 계보는 자연과 합일하는 전통적인 서정시 계열을 잇고 있는바, 근대 이후 전통 서정의 시세계가 갖는 의의는 재정립,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시인을 꿈꾸는 아이》는, 시인의 총체적인 시정신을 또 다른 형태로 드러낸 독특한 양식의 작품으로, 우리 문학에서 앞으로 개척해나가야 할 작품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

7) 이야기 시집 《시인을 꿈꾸는 아이》에 등장하는 주요 심상들은, 시집의 표제로 즐겨 선택되어 출간된 것도 확인하였다.

[부 록] 《시인을 꿈꾸는 아이》의 줄거리

(1) 한 아이(아이 시인)가 이 세상으로 와서 묵묵히 걸어가다가 언덕에 도달하여 바다를 내려다 보고 있다. 갑자기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여, 바다는 몸을 뒤틀고, 하늘은 원시의 밤처럼 놓여 있는 가운데, 아이 시인의 내부로부터 “너와 주위 전체가 새로운 우주로 변했다. 새로운 땅이 네 앞에 있다. 그것을 향하여 떠나라.”라는 소리를 듣는다. 그 소리를 듣고 바다를 다시 보니 그것은 빛의 큰 날개 같았고, 장엄한 날개를 편 새가 가만히 앉아 있었다.

(2) 아이 시인은 혼자였고, 마을 사람들이 땅의 일에 정신을 쏟고 있을 때 아이 시인은 하늘의 아름다움에 반해 그곳에 시선을 주었고, 달뜨는 바다를 보러 다니기도 했다. 자연의 온갖 것이 그의 친구였고, 많은 아름다운 벌레들과 함께 살았다. 아이 시인은 풀잎의 얼굴로 말하고, 별의 영혼으로 웃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아이를 싫어했고,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그랬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그의 영혼을 지배하거나 가두지는 못했다. 아이시인은 벌레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집을 부수고 나비로 태어나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모습을 보곤 하였다. 나비가 펴는 날개의 떨림, 허공에 날개가 뿌려 놓은 무수한 영혼의 언어들, 푸른 하늘 속에 나비가 씨놓은 순결, 평화, 사랑, 자유의 빛나는 언어를 읽고 감동에 젖어 나비의 자유로운 아름다운 모습을 예찬하는 시를 읊기도 하였다. 나비가 떠나간 후 황홀한 감동과 결별의 고통을 살던 어느 날 아이 시인은, “꿈을 꾸어라. 날개를 준비하라. 날개를 얻기 위하여 고통을 기꺼이 짊어져라. 그 고통의 끝에서 하늘이 너의 옷을 준비하고 너를 기다릴 것이다.”라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영혼의 소리를 듣는다.

(3) 아이 시인은 한 마리 벌레로서 혼자서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이 지상으로부터 어딘가 열려 있을 자유의 공간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고 싶었다. 그의 영혼은 아름답게 떠오르는 몸짓을 꿈꾸기 시작했다.

(4) 마을 사람들은 벌레와 더불어 벌레처럼 살아가는 아이 시인을 보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저주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길 끝에서 무엇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하여 아무도 생각해 보지 않고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 묵묵히 함께 걸어가기만 하고 있다. 아이 시인은 그 길의 의미, 가치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그들 모두의 길에서 그 혼자만의 길을 잡아 떠났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주한다. 그러나 아이 시인은 이제 인간세계의 일에는 눈 멀고 귀 먹은 채, 갓 태어난 어린 아기처럼 아무 두려움도 거리낌도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5) 아이 시인은 여전히 언덕 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서 있는 아이 시인은 어깨와 옷깃 머리 위를 기어다니던 벌레들이 어둠이 걷히고 환상처럼 모습을 드러내면서 쉬지 않고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드디어 바닷문이 열리고 달이 장중한 모습을 드러내더니 그 열기와 빛이 다시 연꽃으로 변하여 피어 올랐다. 아이 시인은 연꽃 잎의 말쑤에 감싸인다. 연꽃은 갑자기 큰 새로 변하여 긴 빛의 날개를 펴두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6) 아이 시인은 꿈인가 생시인가 모르게 소를 타고 하늘인가 땅인가 모를 높은 곳, '삶과 죽음의 경계'에 도달한다. 거기서 죽음의 땅을 들여다 보지만, 삶의 땅이 죽음의 땅이며, 죽음의 세계가 바로 삶의 세계 그 자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하얀 빛 하얀 소가 아이 시인을 태우고 가려고 다시 온다.

(7) 아이는 죽음 속을 헤매다가 돌아온 듯 사흘만에 자신의 방 안에서 다시 눈을 떴다. 그동안 동네 사람들은 그 신비의 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 방안의 천장이 이상한 기운을 내는 불빛 한 가운데 커다란 새의 모습이 나타난다. 온 방안은 아이도 함께 빛안개로 빛나고 구름으로 구르기도 하였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새가 내려와 날개를 펴 아이 시인을 감싼다. 아이 시인은 눈을 감고 깊은 잠 속으로 빠진다.

(8) 아이 시인은 꿈에서 한 마리 새가 된다. 날개를 펴고 높은 하늘에 섬같이 작은 땅에 이르러, 하늘세계에 도착되어 있다가 지상의 세계를 내려다 본다. 싸움뿐인 아이들의 놀이, 가면 쓴 어른들의 모습 등 개미 같은 모습으로 꼬물거리며 싸우는 지상의 모습을 보면서, 대지의 영원한 주인은 대지임을 노래한다. 그리고 나서 마을 사람들 가슴에 숨어 있는 '뱃줄'을 보게 된다. 그 뱃줄이 큰 동아줄이 되어 하늘로 올라 아이 시인의 목을 졸라 메고 아래로 당겨 아이 시인은 비명을 지르며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진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비밀인 '뱃줄'을 보았다는 이유로 그 동아줄로 끌고 마을 밖으로 나가 없애려고 한다. 아이 시인은 계속 비명을 지르는 자신에 놀라 잠에서 깨어난다.

(9) 꿈에서 깨어났으나 아이 시인은 몸을 일으킬 수가 없다. 고통만이 내부 깊은 곳으로부터 아이 시인을 짓부수어 떨어 신음한다. 아이의 부모가 들어와 보니 아이 시인의 겨드랑이에서 날개가 솟아나 있고, 아이는 온갖 고통을 다 몰아내고 눈을 감은 채 평화로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10)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아이 시인에게는 일체의 출입이 금지되었다. 아이 시인은 그의 방에 완전히 감금되었다. 방이 한 개의 벌레껍질처럼 그를 가두고 세상으로부터 그를 완전히 격리시켜

놓았다. 마을 안은 이 일로 술렁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 단순히 날개를 보았다는 말이 장사가 낫다는 소문으로, 마침내는 그 아이가 왕이 되어 나라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해괴한 소문으로 야단들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날개로 나는 것은 죽는 것이었다.

(11) 온갖 소문과 말로 더럽혀진 마을도 시간이 흘러 다시 맑아지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흘러 여름 어느날 아이 시인이 두렵고 눈부신 날개를 피고, 한 손에 꿈을 들고 다른 손에 고통과 어둠을 들고, 헤진 옷자락 바람에 펄렁이며 다시 세상에 나왔다. 아이 시인은 그를 감금했던 문을 박차고 나와 단숨에 마을 뒷산으로 뛰어 올라 잊혀졌던 별관으로 나가 자연, '열려 있는 영혼들'과 더불어 오랜 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12) 오랫동안 물 속에 있던 아이 시인은 다시 밖으로 나와 크고 넓적한 바위에 위에서 잠이 들었다. 그 사이 그를 에워싼 마을 아이들은 '날개 달린 장사'를 보고 모두 도망치고, 아이 시인은 별관으로 발을 옮긴다.

(13) 아이 시인을 맞이하는 별관은 예나 다름이 없이 모두가 생기발랄하고 활발해 보였다. 아이 시인은 풀잎, 꽃, 햇살, 새들, 그리고 잠자리, 다람쥐들과 대화를 한다. 옷을 입고 있는 인간들, 인간들의 집, 닫혀 있는 영혼 등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서로 헤어진다. 하늘은 많은 별들이 피어 있고, 아이 시인은 아름다운 그 세계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다. 그런 아이 시인의 모습이 별 사이를 날아가는 나비 같다.

(14) 한편, 세상으로 나와 선 아이 시인을 맞는 마을은 아이가 나타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씹어 삼킬 듯 기다리고 있다.

(15) 드디어 아이 시인이 동구(洞口)로 들어선다. 아이 시인을 쳐다보는 마을 사람들 눈빛이 적의로 이글거리고, 그들과 마주 선 아이 시인의 눈도 활활 타오른다. 아이 시인은 하나같이 모두가 가면이 씌어져 있고, 가면을 쓴 가슴에는 또 밧줄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본다. 아이 시인은 집에 이르러 강 깊숙이 숨어버린다.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망은 빗장문으로 잠기고 아이 시인은 깊고 깊은 잠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16) 아이 시인은 잠 속 꿈에서 새가 되어 높고 푸른 하늘을 날아 올랐다. 그전처럼 하늘에 떠 있는 작은 섬에 이르러, 많이 변해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본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학의 모습을 한 많은 새들이 섬으로 날아들었다. 아이 시인은 그 새들 뒤를 따라 시공의 경계를 초월하여 올라 위대

한 산을 향해 계속 날아갔다. 모든 빛들의 근원인 빛의 산에 이르러, 빛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모든 그림자와 두려움을 씻고, “이제 새로운 땅에 서고, 새로운 문을 열었음”을 확신받는다. 자신의 모습도 완전한 한 마리 새가 되었다. 밧줄을 끊고, 꺾질을 벗고 눈을 떴다. 그리고 그 위대한 분으로부터 설법을 듣는다.

(17) 아이 시인은 계속 꿈속에서 다른 꿈의 문을 열고 들어가 어느 별관으로 나갔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수면에 거울 같은 강물을 바라보며 물속의 세상을 들여다 본다. 그러다가 강물의 흐름에 따라 물위에 떠서 흘러가며 그 속에서 펼쳐지는 세상을 보게 된다. 강물은 흐르면서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흘러가면서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다시 태어난다. 강물의 흐름은 다른 아닌 모든 삼라만상의 변화의 연속 흐름이었다. 아이 시인은 명상에 잠긴다.

(18) 명상에서 눈을 뜬 아이 시인은 수많은 물방울들이 떠다니는 하늘을 바라본다. 그들은 또 하얀 구름을 만들어 하늘 이리저리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보다 큰 물방울이 되어 지상으로 떠나기도 하였다. 아이 시인은 구름과 여행하면서 상대적인 차이를 깨닫지 못하고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답답한 세상을 구경한다. 그러다가 구름 속에서 잠이 든다. 깨어보니 굵은 빗방울들을 따라 지구로 내려오는 중이었다. 물방울들은 여러 모습으로 변해 있었지만, 아이 시인은 감감한 흑암의 우주 공간에 홀로 내던져진다. 우주에 도달한 아이 시인은 잠에서 깨어나 긴 꿈속에서 문을 열고 현실로 돌아온다. 그의 앞에는 현실과 꿈의 두 세계가 하나로 나타나, 아이 시인은 어느덧 꿈과 현실 속에 함께 앉아 있다. 아이 시인은 이제 하나의 빛이요, 새로운 침묵이며 타고르는 불이다. 아이 시인은 자유인으로 눈을 떴다. 아이 시인은 눈을 뜨자 '날개를 퍼라, 날개를 퍼라'는, 깊은 내부에서 울려오는 험한 영혼의 소리를 듣는다.

(19) 아이 시인은 드디어 날개를 펴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연습을 시작한다. 아이 시인은 날개를 펴고 방안을 한 바퀴 빙 돌고 다시 날개를 가만히 내렸다 세차게 허공을 때린다. 허공에서 다시 날개를 들어올리자 세상의 모든 영혼이 그의 날개 안으로 몰려와서 숨겨진 사물의 본성과 비밀을 환히 드러낸다. 날개짓 소리는 고요한 밤을 찢고 계속계속 소름 끼치도록 멀리 흩어져 나간다.

(20) 한편, 자정이 넘어서기만 하면 조금씩 들려오기 시작하는 이 소리에 아버지는 소름이 끼친다. 아이 시인의 방에는 바닥에 누워 있어야 할 아이 시인은 없고 그 자리엔 세상에서 처음 보는 괴물이 살기 등등한 기세로 온 방을 가득 차지하고 앉아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독기를 품고 활활 타고르는 눈매는 곧 세상으로 달려들어 전부를 불태워 버릴 듯 허공을 노려보고, 온 몸을 덮은 것들은 서슬 푸르게 일어서 빛을 뿜어내면서, 구부러진 부리 안에서 내민 빨간 혀바닥은 무엇이나

삼켜버릴 자세로 혈떡이는 숨에 따라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모두가 깊이 잠들어 적막한 밤. 죽음에서 깨어난 아이 시인의 방에서는 몸을 찢는 소리가 저주스럽게도 그치지 않고 들려오고 있었다.

(21) 매일 밤 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소리를 들어야 하였다. 아버지는 내 아들을 지토록 만든 놈이 어떤 놈인가, 어떤 힘이 내 아들을 지토록 괴상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서 당장 해치우려고 헛간에서 낫을 들고 마을 한 복판에서 누군가를 찍으려고 앞으로 나서지만 그 앞에는 검은 등을 드러낸 허공뿐이었다. 캄캄한 허공을 향해 힘껏 멀리 낫을 던진다.

(22) 이제 마을 대표가 나라님을 앞세우고 오겠다는 날이 내일로 다가왔다. 시간이 흘러 동이 틀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죽음처럼 고요하던 아이 시인 방에서 드디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 소리는 크게 들리더니 마을을 열고, 세계를 열고, 하늘을 열어 우주를 향해 터져 나간다. 어둠은 쓰러지고 벽은 허물어진다. 드디어 최후로 육신을 찢는 소리가, 단말마의 그 소리가 마지막 비명으로 아버지의 고막을 찢어버리고는 세찬 날개 짓을 끝으로 고요해진다. 방안으로 뛰어들어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둠만이 그를 가로막고 있다. 자세히 보니 아이가 남겨놓고 간 타원형의 새알 껍질 같은 것, 큰 벌레가 벗어놓고 간 쭈글쭈글한 껍질 같은 물체만 남아 있었다. 아버지는 저 멀리 타오르기 시작하는 동녘하늘을 바라본다. 그 하늘로 날아간 아이 시인이 펼치는 날개짓이, 핏빛 선명한 빛살을 세우고 고요하고도 황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때 멀리 어디선가 종소리가 나직이 울려온다. 이것은 자유의 땅 영원의 나라로 날아간 새가 다시 모두에게로 돌아오는 소리였다. 아버지는 종소리가 울려오는 자유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옮긴다. 잠 속에서 막 깨어난 마을 사람들도 하나씩 자리에서 이리나 타오르는 동녘의 빛을 향하여 그들의 영혼을 부르는 종소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한다. 그러자 이들의 발걸음을 찬양이라도 하듯 이 모두를 향하여 우주의 위대한 교향악이 힘차게 울려온다.